

러-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핵심 소재 수급 다변화 노력 필요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세계경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,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 등으로 '22.3월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입 대폭 축소'
 - * '22.3월 한국의 對러시아 교역액은 19.7억달러로, 전월 26.4억달러 대비 24.5% 감소
- ◆ 한국은 핵심 소재* 수급이 우려되고 있어,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에 대해 공급처 다양화 및 수입대체 노력 필요
 - * 반도체,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 공정에 필요한 나프타, 팔라듐, 크립톤, 네온 등

□ '22.2.24일 러시아가 '특별군사작전' 미명 아래 우크라이나를 침공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피해 발생

- (우크라이나)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도인 키이우와 하르키우,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가 폐허가 되었으며, 막대한 인적 피해* 및 난민 발생**
 - * 5.2일 유엔인권사무소는 2.24일~5.1일 민간인 사망자 3,153명, 부상자 3,316명으로 집계
 - ** 5.2일 현재 피란민은 약 550만명으로, 약 290만명이 폴란드, 약 40만명이 독일로 대피
- (러시아) 당초 단기전을 예상하였으나,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지원으로 '특별군사작전'이 장기화되며 군사적 손실이 상당한 수준

러시아의 군사적 손실 현황(5.9일 현재 우크라이나 집계)

(단위 : 명, 대, 척)

군인사망	전투기	헬리콥터	탱크	장갑차	대포	전투함	대공포	다연장포	드론전투기
25,650	199	158	1,145	2,764	513	12	87	185	377

자료 : Ukrainska Pravda

- IMF는 '22.4월 전쟁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미국과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* 등을 반영, '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한편 러·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
 - * 러시아의 해외 자산 동결, 국제은행간통신협회(SWIFT) 퇴출 등

'22.4월, IMF 세계경제전망

(단위 : %, %p)

	'21년	'22년			'23년		
		'22.1월(A)	'22.4월(B)	조정폭(B-A)	'22.1월(C)	'22.4월(D)	조정폭(D-C)
전세계	6.1	4.4	3.6	△0.8	3.8	3.6	△0.2
러시아	4.7	2.8	△8.5	△11.3	2.1	△2.3	△4.4
우크라이나	3.4	3.6 ^{주)}	△35.0	△38.6	-	-	-

주 : IMF '21.10월 전망치
 자료 : IMF

□ 러·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'22.3월 한국의 對러시아 교역규모 대폭 감소

○ (교역액) '22.3월 한국의 對러시아 교역액은 19.7억달러로, 對러시아 제재 참여와 러시아의 逆제재* 영향으로 전월(26.4억달러) 대비 24.5% 감소

* 러시아는 3.7일 미국 주도의 對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8개 국가(한국 포함)를 '비우호국가'로 지정하여 에너지자원에 대해 루블화 결제, 자국산 완제품 및 원자재 금수 등으로 제재

○ (수출) 3월 수출액은 3.5억달러로 전월 대비 62.7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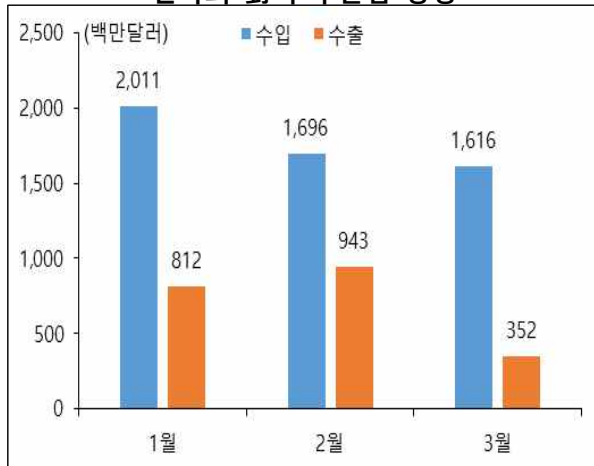
- 주요 수출품인 차량 및 부품 수출액은 0.6억달러로 전월 대비 99.8% 감소

○ (수입) 3월 수입액은 16.2억달러로 전월 대비 4.5% 감소

-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액은 3.5억달러로 전월 대비 12.3% 감소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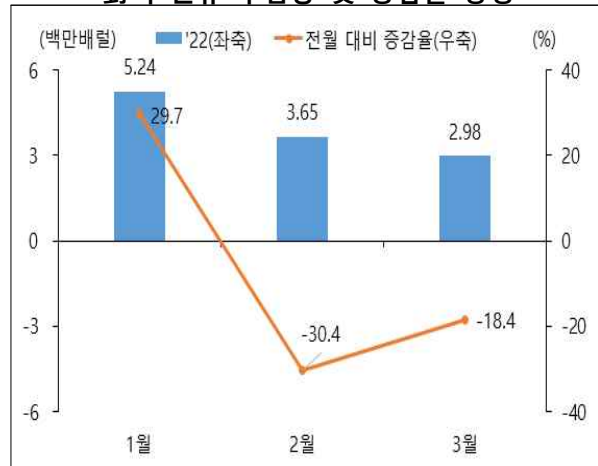
* 원유 수입량은 2.98백만배럴로 전월 대비 18.4% 감소하였으나, 유가상승으로 수입량 감소폭이 대비 수입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

한국의 對러 수출입 동향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對러 원유 수입량 및 증감률 동향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 petronet

□ 러·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핵심 소재 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

- 푸틴 대통령이 5.9일 세계 2차대전 전승절 행사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만을 주장함에 따라 러·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
-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,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시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
 - '21년 기준으로 러시아로부터 페로실리코크로뮴*(92.9%), 나프타(23.4%),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인 팔라듐(33.2%), 크립톤(17.5%), 크세논(9.2%), 네온(5.3%) 등과 수산물(대게 100%, 명태 96.1% 등)을 수입**
 - * 스테인레스강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
 - ** '21년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2,075개 품목 중 118개 품목이 수입 비중 20%를 상회하고, 62개 품목이 50% 이상(무역협회)
 - 우크라이나로부터는 크립톤(30.7%), 네온(23%), 크세논(17.8%) 등의 반도체용 소재와 식용유, 곡물 등 농산물을 수입
-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수입대체재 개발로 수급안정화 필요
 - 기존 공급처와의 극단적인 관계 단절보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함으로 핵심 품목 수급에 대처하고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확대
 - 포스코는 TEMC와 공동으로 네온 기술 국산화 및 생산설비를 개발하고 제품 출시로 국내 수요의 16% 공급 결실